축복 주도권

(창33:12~20)

12.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13.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 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14.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15.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16.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17. 야곱은 숙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숙곳이라 부르더라
18.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19.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20.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축복 주도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축복 주도권'
요즘은 애완용동물을 애완용이라고 하지 않고 반려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려동물 중에서 첫 번째는 역시 개입니다. 그런데 개와 주인 간의 주도권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반려동물인 개와 주인이 함께 하려면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를 길들이지 않으면 아무데나 똥 싸고 오줌 싸고 아무 때나 짖어대면 너무 힘듭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망아지만한 셰퍼드를 아파트 안에서 키울 때에 성대를 다 잘라버립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조용히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데 주도권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개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애완용으로 키우는 개와 주인간

의 주도권 싸움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먹이를 놓고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먹이를 놓고 주인이 주도권을 갖고 있음을 개가 인정하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모든 말을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이를 놓고 어떻게 주도권을 주인이 가져올 수 있느냐?
이때에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늑대에게서 배운다고 합니다. 늑대 무리에서는 언제나 리더가 먼저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개를 키울 때에도 개보다 주인이 먼저 식사하지 않으면 주도권을 쥘 수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이론은 식사의 순서에 따라서 주도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주도권을 주인이 갖고 있다는 것을 개가 인정해야만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요즘은 건식사료를 파는데, 개밥그릇에 늘 사료를 채워놓은 상태이거나 개가 밥 달라고 짖어대는 재촉을 할 때에 주인이 먹이를 주게 되면 주도권을 개가 가져가고 주인이 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도권을 쥘 수 있느냐?
주인은 절대로 정해놓은 시간 이외에는 개에게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되고, 그 시간되기 이전에는 주인이 식사를 한다거나 할 때에 개가 보는 앞에서 아주 느긋하게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앓느니 죽지 이러고도 사람들이 개를 키웁니다.
왜냐하면 늑대 무리에서 늘 허겁지겁 먹이를 먹는 것은 서열 최하위의 늑대가 그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주인이 천천히 밥을 먹고 있으면 개들이 와서 식탁 주변을 빙빙 돌면서 밥 달라고 끙끙거립니다. 절대로 밥을 줘서는 안 되고 천천히 식사를 하면서 밥 달라고 재촉하며 짖을 때에 '안-돼!'하고 냉혹하게 한 마디를 하고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개가 짖기를 멈추면 '앉아! / 저리 가!' 같은 지시를 해서 그 지시에 따랐을 때에 상으로 먹이를 줘야 주도권을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가 짖을 때에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되는 것은 주인이 계속 반응을 보이며 거기에 말려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개가 짖을 때에 정해놓은 시간 이외에는 절대로 밥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개를 키워보질 않아서 이런 게 있는 줄은 몰랐어요. 다들 이렇게 해서 개에게서 주도권을 빼앗아서 개를 잘 길들이고 살고 있습니까?
궁금하네요.

여러분!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에서도 자칫하면 주인이 개 길들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 주도권을 위해서 선민을 길들이기에 나서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인 선민이 축복 주도권을 쥐려고 할 때에, 도대체 축복 주도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궁

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늘 쥐고 있어요.
무엇이냐?
축복에 대한 소원을 마음에 갖는 것으로부터 주도권을 쥐는 것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할 때에, 그 축복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받는 복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갖는 것에서부터 축복 주도권을 인간이 쥐게 됩니다. 그 인간이 그렇게 소원을 쥐게 되면 의지를 갖게 되는데,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는 축복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소원 자체가 주도권을 이미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선민입니까?
이 축복 주도권을 소원을 통해서 행사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미 주어져 있는 축복에 자각해야 합니다.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없었다가 태어나게 되었잖아요.
이미 얻은 축복을 내가 자각하면서 얻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선민의 과제입니다. 선민, 즉 선택 받은 자들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이 땅에서 받은바 복들이 있어요. 그 복 대신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 들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축복은 궁극적인 축복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얻기 위한 재료일 뿐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새로 얻거나 기존의 축복 위에 새로운 축복을 얹으려고 하지 말고, 기존의 축복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을 모셔 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셔 들여야 합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소중한 것들이 다 축복입니다. 내 목숨이 소중하고 내 몸이 소중하고 내 가족이 소중해요. 그 소중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으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만으로 내 마음이 만족하기를 바라고, 하나님만으로 내 마음이 기쁘기를 바라고, 하나님만이 내 진정한 기업이고 몫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내게 소중한 이 땅의 축복들이 있으니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계속 죽으면, 하나님은 본성상 인간을 만드신 분으로 인간에게 축복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이상으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축복의 소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지금 축복 주도권을 쟁취한 대표적인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야곱에게서 믿음을 배우면 안 되는 것이고, 야곱에게서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성경에 등장시키시고, 그런 야곱을 선택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잘못한 것이 새삼스러운 잘못이 아닌 거예요.
원래 야곱은 잘못의 장아찌입니다. 잘못에 절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상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는 사람 자체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니 잘못을 해도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 전제를 하고 우리도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면서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축복 주도권을 우리 인간이 쥘 때에 나타나는 병폐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축복 주도권을 쥐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 주도권을 쥐어봐야 아무런 효과도 없고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32장에서 야곱이 얍복 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결국 이 씨름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축복을 마음에서 놓고 하나님을 선택하길 바라서 씨름을 하셨는데 기어코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동안에 더 시간을 늘려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일단 여기서 져주시는 것입니다. 놓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에서 진 뒤에 “축복해주셨다”라고 나옵니다.

한 번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이제 얍복 강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이겨서 축복을 받아 냈습니다. 장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기도의 모범으로 삼고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죽도록 밤새면서 씨름하듯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씨름하기 전에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기도 전에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셨고, 그리고 벧엘에서 나타나셨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야곱에게도 다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야곱이 지켜달라고 하기도 전에 “네가 이 땅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내가 너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얍복 강가에서 싸우기 이전에 20년 동안 모은 가족과 재산이 에서의 분노 앞에서 다 없어질 위험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에서의

마음을 다 누그러뜨려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그대로 승계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다 지켜놓으신 상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셔서 축복하셨을 때에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야곱에게 허락하신 축복 이외에 무엇을 더 덧붙여서 축복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을 둘을 만들어야 할까요?
“너한테 줄 축복은 다 주었으니까 이제 다른 축복을 하려면 너와 똑같은 인간이 하나 더 생기는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다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놓지 않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지셔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무슨 축복을 해주셨겠습니까? 축복을 위한 축복을 해주셨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다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주신 것을 반복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어머니인 리브가와 짜고 주도적인 입장에 서서 형, 에서를 두 번씩이나 속이면서 장자권을 획득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없이 거지로 쫓겨납니다.
이것이 축복 주도권을 인간이 쥔 현실이에요. 그 효과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축복을 받겠다고 밤새 기도하고, 새벽기도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틈틈이 기도하십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는 것이고 그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려고 축복의 계획을 세우신 것 이상을 소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가 만인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상상 이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내가 축복 주도권을 쥠으로 내 한계 안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 주도권이 저주로 임하게 됩니다.
어떤 저주로 임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자체를 무산시켜버리고,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없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핵심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나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몇 사람이든지 간에 나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에서와 화해를 한 다음에 에서가 앞장서서 인도할 테니 같이 가자고 할 때에 “아이들도 있고

소 떼가 있기 때문에 장정들이 가는 속도로 갈 수가 없으니 먼저 가시고, 나는 세일 산에 가서 형을 뵙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세일 산에 가서 형을 뵙는 일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에 만나서 장사지냈다는 이야기가 나올 뿐이지 형에게 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 주도권을 쥔 자의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승계시키고 계시는 축복의 핵심입니다. 그 모든 족속 안에는 에서도 포함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온갖 겸손한 표현을 통해서 야곱이 에서를 떨쳐냅니다. 에서와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에서와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에서에게 일곱 번을 절하면서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에서에 대한 행동은 내게 주어진 나의 소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에서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반성이 전혀 없어요. 일단 내 소유가 안정되고 나니 이제부터 할 수 있는 일은 온갖 겸손의 모양을 떨면서 에서를 떨쳐냅니다. 에서와 같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과 그 삶에 에서가 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모든 족속에 대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축복 주도권을 쥐고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에서 그 소원을 갖고 있지요?
그러면 절대로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이루려고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축복 주도권이 뭐라고요?
축복에 대한 소원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필요하면 붙고, 이미 확보가 됐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을 떨쳐내고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궁극적인 저주로 왜 사람을 떨쳐낼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모셔 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에서와 헤어진 뒤에 세일로 가지도 않고,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지도 않고 숙곳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 숙곳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렀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딸 디나가 얍복 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6~7살 정도로 추정되거든요. 그 숙곳에 머물

다가 세겜으로 옮기자마자 디나가 다른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의 마음에 들어 욕보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디나가 숙곳에서 세겜으로 이사하기 전에 아가씨로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숙곳에서 꽤 오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으로 옮기자마자 딸이 강간을 당하고, 오빠들이 화가 나서 세겜의 전 남자들을 칼로 베어 죽이는 피바람이 야곱의 집안에 몰아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는가를 보세요.
숙곳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세겜에서 벧엘까지는 48km정도예요.
에서를 만나기 이전에 밧단아람의 라반의 집에서 얍복 강이 있는 길르앗 산까지 오는데 480km입니다. 그것을 10일 만에 왔어요. 하루에 48km를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에서 벧엘까지는 하루만 더 가면 되는데 안 갑니다.
벧엘로 안 갔다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벧엘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돌기둥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십일조를 바치겠습니다.”라고 했던 곳인데 벧엘로 가지 않습니다. 무사하게 다 돌아왔는데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세상의 축복들이 안전하게 되거나 증식된 뒤에는 하나님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겜으로 와서 제단을 쌓았고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제단에 붙였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기념한다는 뜻도 있겠죠.
아브라함도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을 때에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뭐라고 하느냐?
“벧엘과 아이 사이에 세겜이 있는데, 그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죽는 곳이에요. 아이 성은 폐허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축복된 삶, 이 땅에서의 내 삶 자체를 마음에서 폐허로 놔버리고 하나님이 계신 집인 벧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에는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은 자신의 새 이름이잖아요. ‘엘엘로헤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맨 앞의 ‘엘’은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지역에서 제일 강한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내 소유와 내 복과 내 모든 것을 지키시기에 가장 강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400명을 끌고 왔어도 나를 해치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내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취직을 하십니다.
야곱이 벧엘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야곱의 리베이트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 야곱이 하나님을 취직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지키시는 가장 강한 경호원으로.
축복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마음속에서, 하나님도 내 소유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분으로서 이 지역의 신들 중에서 가장 강한 신으로 신분과 지위를 야곱에게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척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질 수가 없죠.
이 모든 축복을 아브라함처럼 끊임없이 제단에서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데, 야곱이 쌓은 제단의 의미는 거기에서 짐승을 드리며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고 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복 주시려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야 하나님이 품고 있는 사람이 품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축복 주도권의 세 가지 병폐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축복의 계획 이상의 것을 내가 바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병폐가 무엇입니까?
축복의 주도권을 내가 쥘 때에는 절대로 내 삶이 사람을 품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세 번째 병폐로 나타납니다.
축복으로 하나님을 모셔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축복은 버리라고 주시는 겁니다. 축복을 버릴 때에 내가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그래서 내게 목숨을 주시고 몸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소중한 모든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버리고, 마음에서 그것에 대해 죽으라고 그래야 하나님을 모셔 들일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축복 주도권을 쥐면 절대로 하나님을 모셔 들이는 사랑을 표현해 낼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이 내 삶에서 품어질 수가 없고 결국은 겉돌게 됩니다.

이제부터의 창세기의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세겜 땅에 옮기자마자 디나 강간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에 분노해서 아들들이 세겜을 피바람의 지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세겜에 있

지 못하고 결국은 깨닫고 벧엘로 갑니다. 그렇게 벧엘로 갔는데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파는 마음의 찢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가나안 땅에서 머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 앞으로 갈 때까지 야곱의 생애는 이제부터 계속해서 축복이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축복 주도권이 깨어져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적인 축복을 쥐고 있는 야곱의 손을 꺾지 않으면 안 되시기 때문입니다. 얍복 강에서는 져주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 축복을 쥐고 있는 야곱의 손을 꺾기 위해서 끌고 가십니다.

야곱이 축복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얻을 수 있었던 최고이자 절정의 안정은 숙곳에서 머물던 짧은 기간뿐이었습니다. 디나가 6~7살에서 아가씨로 바뀌는 그 기간 동안만 안정적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그게 다입니다.
숙곳에 이르기 전에는 얍복 강가에서 두려움에 떨었고, 라반에게 속아서 살았고, 주도권을 쥔 삶에서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숙곳에서 한 7~8년 안정된 삶을 살고 세겜으로 옮겼을 때부터 자기 아들들이 복의 근원이 되기는커녕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피바람을 몰고 오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생애는 요셉 앞으로 갈 때까지 험악한 생애로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얍복 강가에서 축복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힘의 강도가, 그 정도의 험악한 세월이 아니고서는 완전히 깨어져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숙곳은 야곱의 인생의 최상의 안정기간이지만 고작 그 7~8년 길어야 10년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갈 때에 130살이라고 했는데, 그 130년 세월에 120년 이상을 축복 주도권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생고생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축복 주도권을 내가 쥡니까? 그것은 저주입니다.
이미 주어진 축복을 하나님을 모셔 들이기 위하여 버리고 이미 주어진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소중한 것이 있다면 십자가 붙잡고 무조건 그것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죽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 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갖고 계신 나에 대한 축복의 계획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루어져 나가는 모든 축복은 그 때에 또 다시 하나님을 모셔 들이는데 다 투자해서 축복에 대해 죽는 일이 끝까지 반복되어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을 다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 주도권을 놓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고, 그것이 선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참 묘한 축복 주도권입니다. 쥐면 저주이고 놓으면 또 다른 축복을 불러들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축복 되시는 하나님과 하늘을 갖게 됨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모든 축복에 대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반복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